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 소 영

연세대학교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바탕을 두고 상담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과 기존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들을 문항풀로 사용하여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18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문항들은 상담 장면에서 특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욕구 만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였다. 세 가지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상담성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의 상담시간평가와 상담만족도는 관계성, 내담자의 상담시간평가는 자율성과 관계성,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는 유능감과 관계성의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관계성 만족 척도의 경우 내담자의 애착척도의 몰입 차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측정치에 전이 감정이나 몰입 애착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임상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논하였으며,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기결정이론,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상담성과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 21 인지도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소영(2010년 8월, 지도교수 신희천)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심리치료 연구 역사에서 공통요인과 특정요인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Hubble, Duncan, Miller, & Wampold, 2010). 하지만 1990년대 미국의 관리 의료(managed care)로 특정 장애에 대한 특정 치료의 효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심리치료 연구 분야는 경험적으로 확인된 치료(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s; ESTs)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Kazdin & Weisz, 2003). 이로 인해 모든 치료 접근법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인인 공통 요인(common factors)이 연구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유발되었다(Goldfried & Davila, 2005). 공통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경험적 근거들을 들어 경험적으로 지지된 치료 연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Miller, Duncan, & Hubble, 2005; Orlinsky, 2006; Wampold, 2001; 2007; 2010). 특히 Wampold(2001)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심리치료 효과의 70%가 공통요인에서 기인하고, 22%가 설명되지 않은 효과(내담자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효과)에서 오며, 특정 요인의 효과는 1%이 내라는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되지 않은 요인과 공통 요인에서 기인하는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06년 미국 심리학회(APA)의 증거기반치료 위원회(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는 심리학의 증거 기반 치료를 ‘환자의 성격, 문화, 기호의 맥락에서 임상적 전문지식과 가장 유용한 연구를 통합한 것’으로, 최적의 연구 증거를 ‘심리학 및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관련된 연구 결과, 그리고 실험실과 실제 장면에서 개입전략, 평가, 임상적 문제, 환자 집단과

관련된 결과’로 정의함으로써, 경험적으로 확인된 치료(ESTs)만을 강조하는 데서 공통요인의 중요성을 함께 존중하는 통합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Hubble, Duncan, Miller, & Wampold, 2010;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하지만 여전히 공통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Norcross, 2002; Wampold, 2010), 무엇보다도 치료 결과 설명에서 높은 변량을 차지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치료적 관계(Martin, Garske, & Davis, 2000; Norcross, 2002), 상담자의 대인관계 유형(Lambert & Ogles, 2004; Wampold, 2001) 및 내담자의 변화 동기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Bergin & Lambert, 1978; Lambert & Ogles, 2004; Wampold, 2001).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통합적 상위 이론 입장에서, 다양한 치료 접근법에서 치료적 관계 형성, 내담자 변화 동기 촉진과 치료 효과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결정이론은 성장 지향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인간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인간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나(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2000), 자기결정이론은 내적 성장경향성과 동기를 증진 또는 침해하는 발달적·환경적 영향력을 함께 강조하여 이로 인한 인간의 파편화와 병리 발생을 인식한다. 이로써 자기결정이론은 여러 발달 이론들과 행동주의, 인지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의 견해 차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상위이론(meta-theory)의 입장을 취한다(Deci & Ryan, 2000; Pink, 2009).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 요소이며(Sheldon & Niemiec, 2006) 내적 동기 증진에 바탕이 된다고 주장한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또한 세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이 인간 발달과 정신건강 및 안녕감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구가 만족되는 관계에 끌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본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이러한 성향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기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Deci & Ryan, 2000)

자율성(autonomy)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통합된 자기감(sense of self), 자신의 진정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것, 자기 출선수범적(self-initiating), 자기 조절적(self-regulating)인 것을 말한다(Ryan & Deci, 2000). 그러므로 자율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드러내는 진자기(true self), 진실성(authenticity)과 깊은 관련이 있다(Kernis, & Goldman, 2006). 자율적 행동은 자기라는 현상학적 핵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므로 인과소재(locus of causality)를 내부로 지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Ryan, Deci, Grolnick, & La Guardia, 2006). 자기결정이론에서 보는 자기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경험을 통합하는 동인(agent)이 되므로, 자율성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주체성(agency)을 의미하기도 한다(Ryan, Deci, & Grolnick, 1995).

자율성은 자유 의지(free will), 독립성(independence), 그리고 분리(detachment)와 자주 혼동되지만 이는 다른 개념이다(Ryan, et al., 1995). 자율성의 초점은 자신의 동기적·정서

적·인지적 과정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어떤 행위가 주체로서 자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것(Ryan, Deci, Grolnick, & La Guardia, 2006), 자유와 의지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인과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의 자유 의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존하면서도 자기의지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립성·분리와도 다르다(Ryan & Lynch, 1989).

유능감(competence)은 사회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인 것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습득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행동에서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Ryan & Deci, 2002). Bandura(1989)의 자기효능감과 차이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강화를 얻기 위한 도구(Bandura, 1989)인 반면, 유능감은 경험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된다(Deci & Ryan, 1985; Ryan, et al., 1995). 또한 Bandura(1989)의 자기효능감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여겨지는데, 자기결정이론의 유능감은 주로 핵심적 자기에 대한 느낌(core sense of self)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yan & Deci, 2000; Ryan, et al., 2006).

관계성(relatedness)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을 돌보고 돌봄 받는 느낌을 일컫는다(Ryan, 1995). 관계성은 사회 세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견고히 하고자 타인과 접촉하고 함께하며 다른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Ryan, et al., 1995). 따라서 이 욕구는 특정한 결과물(예, 성관계), 혹은 특정한 상태(예, 결혼, 집단원이 되기 등)의 달성과 무관하게 안전한 친교관계나 화합 안에서 타인과 함께한다는 심리적인 느낌과 관련

되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세 가지 욕구는 모두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내적 동기 증진에 각기 고유한 영향력을 가진다. 내적 동기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순향적 유기체 가정, 즉 인간이 생래적으로 능동적이며 발전 경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내적 동기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의 공급, 즉 세 가지 욕구의 만족이 필수적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행동을 시작(자율성)하더라도, 활동에 관여하는 동안 욕구 만족 경험에 따라 활동이 더 흥미 있어지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특히 특정 활동을 잘 한다고 느끼면 이로 인한 흥미유발은 더욱 커진다(유능감). 그러므로 유능감과 자율성의 경험이 내적 동기와 흥미에 핵심적이 된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세 가지 욕구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암묵적으로 애착과 관련된 관계성(La Guardia, et al., 2000)은 내적 동기를 추구하는 행동에 안정적 맥락을 제공하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흥미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이 사회적 가치가 있거나 의무적인 것이라면 그 행동을 한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적 동기가 없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은 관계성 욕구 만족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타인을 동조(conformity)하는 것과는 다르다. 외적 유관성 때문에 하던 일이 내면화되면 더 이상 행동 유발을 위한 외적 자극은 필요 없으며, 그 행동을 할 때 유능감과 관계성 만족을 느끼게 된다. 완전한 내면화 즉, 통합(integration)은 그러한 조절 과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상태이다. 성

공적인 내면화와 통합은 다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만족시키며, 이 세 가지 욕구의 만족을 통해 내적 동기가 증가하게 된다(Pink, 2009, Ryan, et al., 1995).

다양한 맥락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자율 지향성과 심리적 욕구의 만족이 직장 생활에서 수행결과, 안녕감, 직장 만족을 예측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을 비롯하여(Baard, Deci, & Ryan, 2004; Ilardi, Leone, Kasser, & Ryan, 1993; Lam & Gurland, 2008; Vansteenkiste, Neyrinck, Niemiec, Soenens, De Witte, & Van den Broeck, 2007), 교육장면(Sheldon & Krieger, 2007), 친밀한 관계(La Guardia & Patrick, 2008), 양육(Joussemet, Koestner, Lekes, & Landry, 2005; Joussemet, Landry, & Koestner, 2008), 스포츠(Wilson, Mack, & Grattan, 2008), 환경 보호 분야(Pelletier & Sharp, 2008)까지 그 중요성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안녕감이나 적응, 정서, 기능, 동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 교사, 친구 등 친밀한 대상의 자율성 지지와 이에 따른 심리적 욕구 만족은 학업수행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기능(Soenen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학업에 대한 동기와 안녕감(Chirkov & Ryan, 2001; Gagne, Ryan, & Bargmann, 2003), 자율적인 자기 조절과 불행감(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또한 성인의 애착 형성 및 관계 만족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La Guardia, et al., 2000;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곽소영, 손은정, 2008; 김은영, 2007; 김현주, 2010; 신희천, 한소영, 양옥석, 2009; 이민희, 2007;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a, 2009b; 한소영, 신희천, 2006; 한소영, 신희천, 2007; 한소영, 신희천, 2009; 허진자, 고재홍, 2008).

이러한 풍부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기본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내담자의 동기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에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치료 기제로 설명하고 이를 심리치료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Mancini, 2008; Sheldon, Joiner, Pettit, & Williams, 2003; Ryan, Lynch, Vansteenkiste, & Deci, 2010).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처럼 기본 심리적 욕구가 범문화적이고 범상황적으로 안녕감과 정신건강,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요인(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2002)이라면, 자기실현, 성장,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욕구 만족의 영향력은 강력할 것이다. 상담자-내담자 관계는 종종 대인관계 개선이 목표가 되는 특수한 ‘대인관계·사회적 맥락’이므로 욕구 만족 경험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욕구 만족은 내담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 증진에 큰 영향을 주고, 치료적 관계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조기 종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Pelletier, Tuson, Haddad, 1997; Ryan, et al., 2010).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결정이론 바탕의 치료 연구들은 예방 의학에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상담 및 치료 분야에서는 내담자의 내적 동기

와 관련된 몇몇 연구(Pelletier, Tuson, & Haddad, 1997; Zuroff, Koestner, Moskowitz, McBride, Bagby, & Marshall, 2007; 신은향, 1998; 이수현, 2008)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치료 관련 연구에서 내담자의 기본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에서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개변인이라는 자기결정이론가들의 주장(Ryan & Deci, 2008; Sheldon, Joiner, Pettit, & Williams, 2003)을 뒷받침하려면 먼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여 경험적 연구로 증명되어야 한다(Vansteenkiste & Sheldon, 2006).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욕구 만족 측정의 맥락이다. 욕구 만족은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La Guardia, et al., 2000), 이에 따른 관련변인과의 상관과 영향력도 달라진다. 그 맥락에서 어떤 측면의 욕구 만족이 더 중요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민희(2007)와 Jang, Reeve, Ryan과 Kim(2009)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사용한 욕구 만족 척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민희(2007)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율성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율성을 만족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강압성이 적은가를 질문해야 할 정도로 청소년 대부분이 교사를 통제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한국교육환경의

현실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율성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능감과 관계성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만 척도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Reeve, Ryan과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만족을 교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 환경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 지각(perceived autonomy support)과 자율성 만족이 학생들의 성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등(2009)의 연구에서 자율성 만족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학습과 학업성취에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 만족보다는 교사의 교수 방법에서 느끼는 욕구 만족감이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측정도구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으나, 특정 맥락에서 더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욕구 만족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상담자가 치유 맥락을 잘 조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적인 요인이다(Sheldon, et al., 2003; Ryan, et al., 2010). 또한 상담 및 심리치료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공통의 특정 목적을 가지면서도 양자의 관계에서 느끼는 경험 자체가 치료도구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수한 맥락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에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가 있으나, 이들이 개발한 척도는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기본 심

리적 욕구의 만족(개인 간의 차이 측정)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연구자들은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척도로 내담자의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치에 개인이 특질적으로 느끼는 욕구 만족이 포함되어 상담 관계 맥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욕구의 만족(상황적 만족의 측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존 치료적 공통 요인과 관련된 변인 중 다수의 연구에서 상담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재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정적으로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Horvath & Symonds, 1991; Martin, Garske, & Davis, 2000)으로 여겨지는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 또한 상담자-내담자 관계와 관련된 대표적 변인이다. 하지만 치료적 동맹은 누구의 입장에서 측정되느냐에 따라, 어떤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의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나고(Horvath, 2001; Horvath, & Bedi, 2002; Fenton, Ceccero, Nich, Frankforter, & Carroll, 2001), 그 효과 크기의 범위가 .15~.22(Horvath, & Bedi, 2002; Martin, et al., 2000)로 설명되어야 할 변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상담결과와 치료적 동맹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투입한 것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효과 크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치료적 동맹이 매우 중요한 치료 요인이며, 그 자체로써 치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아직 그 치료 기제가 경험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아니며(Martin, et al, 2000), 상담성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설명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통 요인으로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다른 도구로는 상담자 평정 척도(Counselor Rating Form; Barak & LaCrosse, 1975, 오경희, 1986)

와 Barrett-Lennard 관계 척도(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arrett-Lennard, 1962, 정방자, 1986)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이나 인상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조성한 치유적 맥락의 결과물만 또는 내담자 요인에 의한 인상형성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측정 내용이 상담자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지지하는 내용과 일부 중첩될 수 있으나, 자기결정이론에서 장기적 치료 효과와 내적 동기 증진에 중요하다고 보는 자율성과 유능감 만족과는 측정 내용에 거리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를 맥락의 변화에 따라 정확하고 섬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담자들의 면담 자료와 자기결정이론 문헌들을 종합하여 척도 문항풀을 구성하고, 문항을 추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타당화를 위한 관련 척도를 선정할 때에는 국내 연구가 이루어진 척도 중 가능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모두 사용이 가능한 척도를 선정하여 내담자의 응답뿐 만 아니라 상담자가 응답한 측정치와도 적절한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모든 치료적 접근법에서 나타나는 공통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문항풀 구성과 예비문항 선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풀을 구성하기 위해 내담자를 면담하여 질적 분석한 연구 자료(한소영, 2010)를 바탕으로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토의를 거쳐 문항을 고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상담성도가 좋았으며, 최소 10회 이상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 면담 자료에서 48문항을 추출하였다. 내담자는 (1) 현재 상담 중이거나, 종결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상담과정의 느낌이 생생하고 (2) 고등학생 이상 연령이며, (3) 심한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조건으로 선별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상담센터와 사설상담기관의 상담자 30여명에게 추천을 부탁하여, 11명의 상담자로부터 15명의 내담자를 추천받았다. 이중 전화 연락이 닿고 녹음에 동의하여 면담에 성공한 12명의 내담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면담은 상담심리전문가이며 박사과정 수료자인 연구자 중 1인이 모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상황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기존 척도들 중 측정초점이 다른 척도의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문항풀 구성에 사용된 기존 척도는 La Guardia 등(2000)이 사용한 욕구 만족 척도(Need Satisfaction Scale)와 Reeve와 Robinson(1987)이 개발한 활동-느낌 척도(activity feeling scale)이다. La Guardia 등(2000)의 척도는 관계에 따른 욕구 만족 정도에 초점을 둔 척도이며 Reeve와 Robinson(1987)의 척도는 과제 수행 상황에 따른 욕구 만족 정도에 초점을 둔 척도로, 경험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질문지 번안은 다음의 3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1차 번안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이 있고, 상담심리학 전공으로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박사수료생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중 언어 사용자가 원문항과 번안된 문항을 살펴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번안을 완료하였다. Reeve와 Robinson (1987)의 척도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번안과정에서 다른 문항풀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도록 상담상황의 느낌을 반영하는 진술문으로 변경하였다.

문항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5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자 집단은 석사학위소지자이면서 임상심리 전문가인 두 명, 박사과정자이면서 임상심리 전문가인 한 명, 심리학 전공의 척도개발 전문가 두 명(박사 1인, 박사수료생 1인)이었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은 각 문항이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문항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사이로 평가하였다. 문항 평정에서 다섯 명의 전문가 중 1인 이상 2점 이하로 평정 받은 문항은 모두 제외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율성 11문항, 관계성 9문항, 유능감 11문항, 허위문항 4문항으로 구성된 35문항의 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구성타당도 확인 및 최종문항선정

연구자들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35문항의 예비문항을 고등학생 이상 연령, 3회 이상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상담 진행 중이거나 종결 후 3개월이 넘지 않고 심각한 정신질환이 없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상담자들을 통해 배포된 예비문항 설문지는 총 140부로, 회수된 설문지

는 111부였다. 이중 무성의 응답 5부, 반응이 일관되지 못했던 응답 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5명의 설문내용이 분석에 투여되었다. 내담자 중 39명(37.1%)은 남성, 66명(62.9%)은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14세(만), 최대 45세로, 평균 연령은 24.59($SD = 7.76$)세였다. 상담단계를 초기단계로 응답한 경우는 13명(12.40%), 중기단계는 50명(47.60%), 종결단계는 31명(29.50%), 종결 3개월 이내는 11명(10.50%), 무응답은 4명(3.05%)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이 30명(28.60%), 대학생이 24명(22.90%), 직장인이 30명(28.60%), 주부가 4명(3.80%), 기타가 8명(7.60%)이었으며, 상담 기관은 청소년 상담실이 26명(24.80%), 대학상담실이 33명(31.40%), 사설유료상담실이 26명(24.80%), 기업사내상담실이 19명(18.10%), 무응답이 1명(1.00%)이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35명(33.33%), 경기도가 70명(66.67%)이었다.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구성개념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요인 간의 상관관을 가정하기 때문에 사교회전(Direct Oblimin) 방식으로 추출요인을 3개로 지정하고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계성은 비교적 단일 요인으로 잘 구분되었으나, 자율성과 유능감은 요인 간 문항이 뒤섞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본 척도가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주장하는 자기결정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La Guardia, et al., 2000; 이명희, 김아영, 2008; 한소영, 신희천, 2009)에서 이미 3요인 구조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인 요인수의 확인 및 요인 해석가능성은 이미 검증된 것으로 보고(홍세희, 2007), 요

인 별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문항 분석을 위해 요인 별 문항에 대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욕구 만족 중 관계성과 자율성의 평균이 높은 편이었으며, 유능감의 평균은 낮은 편이었다. 표준편차는 .975에서 1.567로 양호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에서 내적 합치도가 전체 .947, 자율성 .849, 유능감 .895, 관계성 .918로 높게 나타났다. 구성 타당도 분석에서 모든 예비문항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측정의 간편성을 위해 개념을 잘 측정하는 문항으로 선발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개발에서는 문항의 평균이 극단치가 아닌 문항, 표준편차가 큰 문항,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가 높은 문항을 선발기준으로 본다(탁진국, 1998).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선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 당 여섯 문항으로 똑같이 맞추어 선정(성태제, 1998)하였다¹⁾

추출된 18문항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5) = 470.856$, NNFI = .681, CFI = .748, RMSEA = .155(.140~.170), 2요인 모델²⁾

- 1)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와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가 모두 하위 요인 당 여섯 문항으로 맞추어져 있어 유사한 심리적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와 의 형식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개발한 척도와 문항수를 맞추었다.
- 2) 2요인 모델은 자율성과 유능감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관계성과 자율성+유능감의 2요인으로 본 모델이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자율성과 유능감 문항이 혼재되어 요인 간 뚜렷한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참고하여, 모델

의 적합도는 $\chi^2(134) = 397.177$, NNFI = .748, CFI = .803, RMSEA = .137(.122~.153),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2) = 265.583$, NNFI = .870, CFI = .900, RMSEA = .099(.081~.116)로 나타나, 3요인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도 모두 유의하였다. 모델 적합도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2_{dif1} 요인-3요인(3) = 205.273($p < .001$), χ^2_{dif2} 요인-3요인(2) = 131.694($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3요인 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델로 나타났다.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이 .943, 자율성이 .848, 유능감이 .920, 관계성이 .923으로 우수하였다. 하위 요인 간 상관을 본 결과 자율성과 유능감은 $r = .555$, 자율성과 관계성은 $r = .757$, 유능감과 관계성은 $r = .757$ 로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18문항이 선발되었다(표 1).

연구대상

내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는 고등학생 이상 연령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약물처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적어도 3회 이상 상담이 진행되었고 상담 진행 중이거나 종결 후 1개월이 넘지 않은 내담자이다.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통해 설문지를 받았으며 배포된 160부 중 133부(쌍)가 회수되었다. 이중 무성의 응답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1명(쌍)의 설문

비교에서 1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 외에도 대안적인 모델로 2요인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계성과 자율성 및 유능감의 2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내용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내담자중 47명(35.90%)은 남성, 84명(64.10%)은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15세(만), 최대 47세로, 평균 연령은 22.91세($SD = 6.57$)였다. 또한 상담횟수는 최소 3회, 최대 80회로, 평균 횟수는 11.35회($SD = 11.91$)였다. 상담단계를 초기단계로 응답한 경우는 39명(29.77%), 중기단계는 64명(48.86%), 종결단계는 19명(14.50%), 종결 1개월 이내는 5명(3.80%), 무응답은 4명(3.05%)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이 30명(28.60%), 대학생이 24명(22.90%), 직장인이 30명(28.60%), 주부가 4명(3.80%), 기타가 8명(7.60%)이었으며, 상담 기관은 청소년 상담실이 26명(24.80%), 대학상담실이 33명(31.40%), 사설유료상담실이 26명(24.80%), 기업사내상담실이 19명(18.10%), 무응답이 1명(1.00%)이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52명(39.69%), 경기도가 58명(44.27%), 충청도가 10명(7.63%), 전라도가 11명(8.40%)였다.

이 중 40명에게 약 2주 간격을 두고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4명의 재검사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재검사에 참여한 내담자 중 14명(41.20%)이 남성, 20명(58.80%)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91세($SD = 3.528$)였다. 평균상담횟수는 22.44($SD = 26.630$)였으며, 고등학생이 5명(14.70%), 대학생이 24명(70.60%), 대학원생이 3명(3%), 회사원이 1명(2.90%), 주부가 1명(2.90%)이었다. 검사 재검사를 실시한 응답자의 거주지는 모두 경기도 34명(100%)이었다.

상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72명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및 전라도의 청소년 상담실, 대학교 상담실, 사설유료상담실, 기업에

서 운영하는 사내 상담실, 군부대 상담실, 교내 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자들이 참여하였다. 상담자 중 7명(9.70%)은 남성, 65명(90.30%)은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25세에서 최대 60세로, 평균연령은 35.93($SD = 7.42$)세였다. 상담경력은 최소 .08년에서 최대 19.92년, 평균상담경력은 5.13년($SD = 4.13$)이었으며, 주당상담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7시간, 주당 평균 상담시간은 9.78시간($SD = 5.87$)이었다. 이 중 1명의 내담자와 쌍자료를 제공한 상담자는 25명, 2명~4명의 내담자와 쌍자료를 제공한 상담자는 24명, 6명 이상의 내담자와 쌍자료를 제공한 상담자는 3명이었다.

도구

<상담자용>

작업동맹척도-단축형(Working Alliance Inventory- Short Form; WAI-S)

수렴타당도 확인을 위해 Bordin(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작업동맹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의 단축형 질문지(Tracey & Kokotovic, 1989)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모두 실시가 가능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이 상담자-내담자 관계 관련 변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안정적 효과를 보이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Martin, et al., 2000), 특히 관계성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사용하였다.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원척

도는 목표합의, 과제동의, 유대의 세 요인에 대해 각각 12문항씩 36문항이었으나 Tracey와 Kokotovic(1989)이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요인 당 4문항씩 12문항으로 단축형을 제작하였으며, 구성개념 측정에서 36문항의 원척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형 척도를 사용한 단축형 척도 개발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수림(2008)은 강혜영(1995)이 한국화한 작업동맹척도에서 Tracey와 Kokotovic(1989)이 추출한 12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고, 다른 관련 척도와의 공존타당도가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수림(2008)과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수림(2008)의 연구에서 내담자용과 상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모두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904로 나타났다.

상담시간 평가 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Stiles(1989)가 개발한 상담시간 평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시간의 즉시적 영향(session impact)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담시간을 깊이, 순조로움의 차원으로, 상담 직후 정서 상태를 긍정적 정서와 각성의 차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모두 국내 타당화가 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희와 김계현(1993)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네 가지 하위 차원 중 이상희와 김계현(1993)의 연구에서는 깊이, 순조로운, 긍정적 정서 각 5문항과 각성의 4문항이, 최윤미(1987)의 연구에서는 깊이와 순조로움의 각 5문항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공통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혀진 깊이와 순조로움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희와 김계현(1993)의 연구에서 상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깊이 .88, 순조로움 .85, 내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깊이 .84, 순조로움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깊이 .834, 순조로움 .864, 전체 문항이 .833이었다.

상담만족도질문지-상담자용(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Therapist Form; CSQ-T)

Larsen, Attkinsson, Hargreaves와 Nguyen(1979)이 개발하고, 김원중(1993)이 번안한 것을 황인호(2004)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모두 사용이 가능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황인호(2004)가 Likert식으로 평정하기 용이하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rsen 등(1979)의 원척도와 김원중(1993)의 척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황인호(2004)의 척도 중 표현이 어색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김원중(1993)의 연구에서 내담자용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6이었으며, 황인호(2004)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용과 상담자용 모두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931이었다.

<내담자용>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BPNS-TR)

문항 선별과정을 통해 개발된 22문항의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상담시간에 상담자와 있을 때, 나는~’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각 6문항과 허위문항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자율성이 .785, 유능감이 .906, 관계성이 .914, 전체문항이 .935였다. 하위 척도별 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내담자의 애착척도(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CATS)

Mallinckrodt, Gantt와 Coble(1995)이 개발하고 지승희(2001)가 한국화한 척도로, 심리치료를 받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애착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자기결정이론가들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애착이 관련이 깊다고 주장(Deci & Ryan, 2000; La Guardia, et al., 2002; Ryan, et al., 2006)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와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원 척도는 36문항이었으나 지승희(2001)가 한국화하는 과정에서 11문항이 제거되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6점)’사이의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척

도는 안정(secure) 9문항, 몰입(preoccupied) 7문항, 회피(avoident) 9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지승희(2001)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안정 .86, 몰입 .75 회피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안정 .858, 몰입 .901, 회피 .729였다.

작업동맹척도-단축형(Working Alliance Inventory- Short Form; WAI-S)

앞서 소개한 작업동맹척도 단축형의 내담자용으로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문장이 약간 다른 것 외에 다른 특징은 상담자용 상담만족도 척도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내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940이었다.

상담시간 평가 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

상담자용 상담시간 평가 질문지와 동일한 설문지를 내담자에게 실시한 것으로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깊이 .860, 순조로움이 .829, 전체 문항이 .878이었다.

상담만족도 질문지-내담자용(Clients Satisfaction Questionnaire-Client Form; CSQ-C)

앞서 소개한 상담만족도 척도의 내담자용으로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장이 약간 다른 것 외에 다른 특징은 상담자용 상담만족도 척도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내담자용의 내적 신뢰도는 .961이었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일반형(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General;

BPNS-G)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 영역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들은 Ryan과 Deci(www.psych.rochester.edu/sdt)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문항과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33문항을 선별한 뒤, 요인분석, 준거 관련 타당도, 수렴 타당도 및 구인 관련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18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자율성이 .702, 유능감이 .750, 관계성이 .785, 전체 문항이 .86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자율성이 .778, 유능감이 .859, 관계성이 .890, 전체 문항이 .921이었다.

절차

연구자는 약 6주간 대학상담기관, 청소년상담실, 사설상담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 상담실, 군부대 상담실, 고등학교 교내 상담실에 근무하는 상담자들에게 전화나 직접적인 접촉으로 협조를 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이 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설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배포 및 수거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들 중 쌍측정이 가능한 도구는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두 명 이상의 내담자가 한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자에게 모든 내담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시간은 상담자는 약 10분, 내담자는 약 15~20분이었으며, 내담자에게는 입구를 봉할 수 있는 봉투를 따로 제공하여 상담자가 설문지 응답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는 각각 5,000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지 응답에 있어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척도의 순서를 달리한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로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문항-총점 간 상관, 확정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자율성 만족 평균은 33.080($SD = 5.173$), 유능감 만족은 39.440($SD = 6.818$), 관계성 만족은 33.510($SD = 5.506$)로, 관계성과 자율성의 평균이 유능감의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³⁾. 표준편차는 .889에서 1.451로 양호하였다. 개발된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문항 분석을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자율성이 .359~.677, 유능감이 .707~.836, 관계성이 .715~.785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상담접근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 요인 모두에서 상담자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paired t-test 결과 자율성이 유능감보다 유의한 차이[t(104) = 7.272(p < .001)]를 보이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도 유능감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104) = 8.127(p < .001)]. 자율성과 관계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요인 및 문항 내용⁴⁾⁵⁾

요인	문항번호	문항 내용
자율성	01	자유롭게 원래 내 모습대로 있을 수 있다.
	04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07	내 의견이나 생각을 꾸밈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11	나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15	내 의지에 따라 기꺼이 행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19	내가 상담을 대하는 태도나 내용이 진실 되지 못한 것 같다.
유능감	03	나의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된다.
	06	내 자신을 믿게 된다.
	10	내가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14	자신감이 생긴다.
	18	내 잠재력을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21	내가 매우 능력 있고 효과적이라고 느낀다.
관계성	02	상담자가 나를 신경써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05	튼튼한 지지자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09	상담자와 교감을 느낀다.
	12	상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느낀다.
	16	상담자에게 친밀한 느낌이 든다.
	20	상담자와 내가 잘 통하는 것 같다.

그 다음 일관되게 3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 분석 결과,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5) = 442.707$, NNFI = .733, CFI = .735, RMSEA = .148, 2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4) = 378.858$, NNFI = .786, CFI = .832, RMSEA = .119,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2) = 260.010$, NNFI = .886, CFI = .912, RMSEA = .086로 나타나, 3요인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모델 적합도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2_{dif1} 요인-3요인(3) = 182.697($p < .001$), χ^2_{dif2} 요인-3요인(2) = 63.879($p < .001$)로 3요인 모델이 우수하였으며, 안정적인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표 2).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3요인 모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⁴⁾⁵⁾

4) 위의 표에서 자율성 19번은 역문항이다. 또한 자율성 1번과 유능감 21번은 La Guardia 등(2000)의 척도를 변안한 문항이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내담자와의 면담에서 추출된 문항이다. 연구자 고안 문항과 Reeve & Robinson(1987)에서 변안된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표 2.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1요인 모델, 2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NNFI	CFI	RMSEA
1요인모델	442.707	135	.733	.735	.148 (.135~.162)
2요인모델	378.858	134	.786	.832	.119 (.105~.133)
3요인모델	260.010	132	.886	.912	.086 (.071~.102)

표 3.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요인 부하량

요인	문항번호	비표준화계수	SE	Z	표준화계수 (요인 부하량)
자율성	01	1.000			.745
	04	.808	.096	8.384***	.779
	07	.815	.103	7.877***	.730
	11	.474	.115	4.126***	.387
	15	.646	.111	5.833***	.543
	19	.883	.134	6.578***	.611
유능감	03	1.000			.791
	06	1.016	.108	9.412***	.758
	10	1.134	.099	11.401***	.877
	14	1.144	.105	10.878***	.847
	18	.887	.095	9.339***	.753
	21	1.047	.104	10.110***	.801
관계성	02	1.000			.756
	05	.665	.092	9.927***	.785
	09	.985	.085	10.178***	.849
	12	.665	.070	8.679***	.740
	16	.915	.084	9.698***	.815
	20	1.093	.100	9.827***	.824

*** $p < .001$

5) 모든 문항은 '상담시간에 상담자와 있을 때, 나는~'으로 시작된다.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이 .914, 자율성이 .787, 유능감이 .916, 관계성이 .909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간 상관 분석에서 자율성과 유능감은 $r = .551$, 자율성과 관계성은 $r = .690$, 유능감과 관계성은 $r = .741$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4).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 검사 2주 후 40명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재검사 결과가 회수된 34명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성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569$, 유능감은 $r = .567$, 관계성은 $r = .642$, 욕구 만족의 총점은 $r = .587$ 로 나타나,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측정치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검사-재검사 결과의 상

관분석에서 1차 시기에 측정한 관계성 점수와 2차 검사의 자율성과 유능감 점수와의 상관은 .163과 .143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재검사를 실시한 내담자들의 1차 검사 결과에서 욕구 만족간의 상관성이 전체 표본에서 나타난 것에 비해 낮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율성과 관계성의 상관은 $r = .372$, 관계성과 유능감의 상관은 $r = .460$, 자율성과 유능감의 상관은 $r = .541$ 였다).

수렴타당도 분석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내담자 애착척도와 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은 회피와 $r = -.645$, 안정과 $r = .662$, 몰입과

표 4.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하위 척도 간 상관과 신뢰도 (N=131)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문항수	신뢰도
자율성	1			6	.787
유능감	.551***	1		6	.916
관계성	.690***	.741***	1	6	.909
전체문항	.829***	.894***	.917***	18	.914

*** $p < .001$

표 5.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N=131)

2차검사 \ 1차검사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총점
자율성-재	.596***	.363*	.163	.437***
유능감-재	.409*	.567***	.143	.466***
관계성-재	.450*	.388*	.642***	.617***
총점-재	.548**	.541**	.342*	.587***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내담자 애착척도와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일반형과의 상관 (N=131)

	애착척도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일반형		
	회피	안정	몰입	자율성-일반	유능감-일반	관계성-일반
자율성	-.645***	.662***	.250**	.402***	.368***	.466***
유능감	-.532***	.588***	.136	.490***	.476***	.453***
관계성	-.638***	.800***	.381***	.312***	.346***	.422***

** $p < .01$, *** $p < .001$

$r = .250$, 유능감은 회피와 $r = -.532$, 안정과 $r = .588$, 관계성은 회피와 $r = -.638$, 안정과 $r = .800$, 몰입과 $r = .381$ 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능감과 몰입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회피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안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몰입과는 상관이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이 애착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표 6).

그 다음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일반형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은 $r = .402 \sim .466$, 유능감은 $r = .453 \sim .490$, 관계성은 $r = .312 \sim .422$ 로 개발된 척도가 일반형 척도와 측정개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작업동맹과의 상관 분석 결과 상담자 측정치와 내담자 측정치에서 $r = .340 \sim .801$ 사이

표 7. 작업동맹 척도와의 상관 (N=131)

	작업동맹	
	상담자	내담자
자율성	.340***	.589***
유능감	.341***	.674***
관계성	.437***	.801***

** $p < .01$, *** $p < .001$

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관계성으로, 상담자 측정치와는 $r = .437$, 내담자 측정치와는 $r = .801$ 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능감, 자율성의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7).

공존타당도 분석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시간 평가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욕구 만족 하위 요인은 상담자 측정치와는 $r = .227 \sim .346$, 내담자 측정치와는 $r = .560 \sim .629$ 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성, 자율성, 유능감의 순으로 상담시간 평가 측정치와의 상관이 높았다(표 8).

상담만족도와의 상관 분석에서는 상담자 측정치와는 $r = .288 \sim .419$, 내담자 측정치와는 $r = .572 \sim .790$ 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는 모두 관계성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표 8).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의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자의 상담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의 경우,

표 8. 상담시간 평가와의 상관 (N=131)

	상담시간 평가		상담만족도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	내담자
자율성	.327***	.578***	.288**	.572***
유능감	.227**	.560***	.305***	.758***
관계성	.346***	.629***	.419***	.790***

** $p < .01$, ***, $p < .001$

설명량(R^2)이 각각 약 14% [$F(3, 127) = 6.732, p < .001$]와 17.5% [$F(3, 127) = 8.999, p < .001$]였다. 내담자의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의 경우, 설명량(R^2)이 각각 약 44% [$F(3, 127) = 33.402, p < .001$]와 69% [$F(3, 127) = 94.208, p < .001$]였다. 상담자의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는 하위 요인들의 공변인을 제외하면 관계성 만족이 유일하게 유의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담자의 상담시간 평가는 자율성과 관계성이,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는 유능감과 관계성이 유의미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시간에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La Guardia, et al., 2000; Reeve & Robinson, 1987)를 변안한 문항과 내담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된 문항, 토의를 통해 고안한 문항으로 문항풀을 만들었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정과 내담자 설문을 통하여, 총 18문항이 선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848~

.923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최종 척도에는 과제수행 상황 만족에 초점을 둔 Reeve와 Robinson(1987)의 척도에서 변안된 문항은 모두 제외되고, 관계에서의 만족에 초점을 둔 La Guardia 등(2000)의 척도에서 변안된 2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는 모두 내담자들과의 면담내용에서 수집된 문항으로 선별되었다.

선발된 문항을 보면 다른 사회적 맥락이나 인간관계보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상담태도나 치유적 경험을 진술하는 문장이 눈에 띈다. 자율성의 경우, 상담에서 내담자의 진솔함과 관련된 문항(‘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상담을 대하는 태도나 내용이 진실 되지 못한 것 같다.’)이 포함되어 있고, 유능감의 경우 상담자의 인정(‘내 잠재력을 인정받는다고 느낀다.’)에 의한 욕구 만족을 진술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관계성은 친밀감이나 관계성을 강하게 표현하던 문항들(‘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느낀다.’, ‘꽤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낀다.’)은 개발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고 좀 더 미묘하거나(‘신경써준다.’, ‘관심을 기울인다.’) 애매한 표현(‘잘 통한다.’, ‘교감을 느낀다.’)의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소영(2010)의 연구에서 내담자들이 상담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라고 지각한 것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소영과 신희천(2009)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에서 관계성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더 강한 친밀감과 애정을 진술하고 있는 것(‘사랑받고 관심 받는다고 느낀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느낀다.’ 등)를 보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관계성 욕구 만족이 적절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표현된 문항들로 선 발된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일반형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율성과 유능감보다 관계성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 만족이 높고, 유능감 만족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상담상황을 잘 반영하는 볼 수 있는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솔직해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상담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나 대인관계에서 보다 자율성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개발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설과 달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명확한 3요인 구조를 보이지 않았다. 관계성은 단일요인으로 잘 분리되었으나, 자율성과 유능감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희와 김아영(2008),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은 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유능감과 자율성을 불분명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율적인 것이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 유능하면 자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다른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사회 맥락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려는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이를 위해 자기 내부에서 바람직한 속성을 발견하고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본다. 즉 한국인들은 유능감 지각을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율성의 일부 개념과 유능감 개념이 혼재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율성과 유능감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것은 입시 및 성과위주의 한국 교육과 문화풍토에서 자기가치 표현이나 자율성에 비해 효능감과 능력이 크게 강조되는 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한성열, 2008).

타당화 과정은 3회 이상 상담을 받은 고등학생 이상의 내담자 131명과 이들을 상담하고 있는 72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쌍측정 설문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3요인 구조와 신뢰도(.909~.787)가 재확인 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37~.61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재검사 신뢰도 결과는 이 척도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 만족을 측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애착척도와 의 상관 분석에서 회피와 안정의 경우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관련 척도들에 잘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관계성의 경우 몰입 하위 척도와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 만족과 관계성 만족 측정에 몰입 애착 특성이나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긍정적 또는 이상화 전이(Colby, 1951)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몰입 차원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자신을 무가치하고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보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자존감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고 이를 통제와 지배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지지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러한 몰입 애착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내담자들이 관계성과 자율성 만족 지각에서 더 크게 반응을 보여, 유의한 상관 결과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 몰입 애착이 높은 내담자는 회피 애착이 높은 내담자와 함께 심리적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 부적응적 인지 및 대인관계 어려움이 높기 때문에(김은정, 권정혜, 1998), 관계성과 자율성 만족 측정치가 실제로 병리 증상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착 척도의 몰입 차원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경계 유지가 어렵고 혼자인 것을 못 견디며, 요구가 많고 의존적인 (Dozier, 1990) '지나친 관계지향'을 나타내므로, 관계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자율성 만족과 관계성 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유능감 만족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승희 (2001)의 연구에서 몰입 차원과 작업동맹의 유대(bond) 차원과의 상관이 $.20(p < .05)$ 로 유의하였고 과제(task), 목표(goal) 차원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몰입 차원에 관계 관련 개념이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된 척도는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일반형, 작업동맹 척도와 상관을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는 안정적으로 지지되었다. 일반형 척도와 적절한 상관결과는 이 척도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욕구 만족과는 다른 차원의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개발된 척도의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와 상관을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척도는 관계성이었다. 회귀분석에서 세 가지 욕구의 상담 결과 분산에 대한 설명량은 상담자 측정치에서 약 14~18%, 내담자 측정치에서 약 44~69%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는 관계성, 내담자의 상담시간 평가는 자율성과 관계성,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는 유능감과 관계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이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에서 상담결과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고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담자의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에서는 관계성 만족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내담자의 경우 방금 마친 상담의 진행이 원활했는지는 자율성과 관계성 만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만족은 유능감과 관계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상담성과의 관련성을 질적 분석한 연구(한소영, 2010)에서 내담자들이 관계성 만족이 상담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욕구의 영향력보다 비교적 낮게 평가했던 것과는 모순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추측해보면 우선 연구 방법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편향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내담자들이 받은 상담접근법에서도 치우친 점이 있어 관계성 만

족의 상담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추측되는 원인은 한소영의 연구(2010)와 본 연구의 내담자 특징에 차이가 있었던 점과 관계성 측정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한소영의 질적 연구(2010)에서는 연구 대상이 비교적 성공적 상담성과가 있는 내담자들이었으며, 상담횟수가 평균 59.1회로 길었고, 상담자들 또한 전문가 이상의 경력자들이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상담 결과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었고 상담횟수는 평균 11.9회로, 이들을 상담한 72명의 상담자들은 20명을 제외하고 전문가 자격이 없는 2급 자격 소지자 혹은 수련 중인 상담자였다. 한소영의 연구(2010)와 본 연구의 타당화 연구 결과에서 제기된 관계성과 전이 감정, 혹은 애착의 몰입 차원과의 관련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아직 확실한 상담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통찰수준이 낮은 내담자들의 관계성 만족 측정치에 긍정적 전이 감정이나 애착의 몰입 차원이 혼입되었을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내담자들이 상담만족에 대한 보고를 함께 증가시켜 상관분석에서 관계성과 상담결과간의 관련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수렴 타당도 분석 결과에서 관계성 만족과 몰입과의 상관이 높았음에도 상담결과에 대한 예측은 관계성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추후 연구에서 재확인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연구결과의 또 다른 제한점은 선발된 문항 중 일부가 문항-총점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문항으로 선발되었다는 점이다. 문항-총점 간 상관이 높은 문항은 높은 변별력이라는 장점(탁진국, 1998)이 있는 반면, 문항 간 공분산을 부풀려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

를 가질 수 있다(엄명용, 조성우, 2005). 같은 맥락에서 요인간의 상관이 매우 높았던 것은 하위 척도들이 유사한 측정개념을 측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유능감과 자율성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고, 확증적 요인분석에서 모델 적합도의 신뢰도 폭이 넓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내담자들이 측정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세 가지 욕구 만족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고유의 영향력이 있는지 다양한 상담성과 측정치를 사용하여 재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만족도는 내담자의 실제 문제 해결 정도나 개선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담자의 증상이나 정서 상태 변화 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여기에 미치는 세 가지 욕구 만족의 독특한 영향력이 있는지 상세히 탐색해야 한다. 하위척도 중 관계성은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에서 애착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경험적 연구(La Guardia, et al., 2000)에서도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관계성을 통제하고 자율성과 유능감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관계성이 애착 척도와 작업동맹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이 척도들과 측정개념에 상당한 중첩이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 가지 욕구의 고유한 영향력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결정이론의 확장과 치료적 적용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내담자들의 연령대와 상담자들의 상담경력도의 편차가 커, 분석에 포함된 자료가 비교적 이질적인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연구의 결과해석에 신

중함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또한 모델 적합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내담자의 자기 보고 측정치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점수가 상담자의 치유적 맥락 조성이나 내담자의 기질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명확히 하려면 내담자의 기저 측정치를 통제하고 이후 반복 측정하여 상담과정을 통하여 욕구 만족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종단연구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상담자가 여러 내담자의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 구조(one-with-many design)로 인해 상담자의 공통 변량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자료 구조는 자료의 독립성을 위배하여 1종 오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Marcus, Kashy, & Baldwin, 2009).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과 같이 3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담에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욕구 만족 정도를 잘 측정하며 상담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척도는 상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또는 지각이나 상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을 유지하고 헌신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지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측정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어쩌면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작업 동맹에 선행하는(기본 심리적 욕구를 지지하여 작업 동맹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Rogers(1957)가 말하는 성장-촉진적 조건(Patterson & Joseph, 2007)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욕구 만족 점수는 상담자들의 접근법에 따른 분산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모든 접근법에서 나타나는 공통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Ryan & Deci, 2008; Ryan, et al., 2010)과 같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치료적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치료적 효과를 상담교육과 실제 치료에 적용하고 일반화하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결정이론의 치료 모델(Sheldon, et al., 2003)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김원중 (1993). 상담자 자기 개방이 관찰자의 상담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

- 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김현주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 설 명 변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태계 (1998).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신은향 (1998).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결정적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 신희천, 한소영, 양옥석 (2009). IAT를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의 암묵적 측정.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1(2), 369-396.
- 엄명용, 조성우 (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학지사.
- 오경희 (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 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 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 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 (4), 157-174.
- 이민희 (2007). 학습장면에서 자기결정론의 동 기화 경로 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이상희, 김계현 (1993). 상담회기 평가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 치료, 5(1), 30-47.
- 이수림 (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 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수현 (2008).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결정적 동기와 상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방자 (1986).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 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 분석.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승희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 애착 이론적 조망 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미 (1987).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 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 47-78.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아동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안녕(well-being) 사이의 자 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3(3), 561-579.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청소년의 부모 에 대한 관계성에 삶과 만족 사이의 자기 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탁진국 (1998).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 해. 학지사.
- 한성열 (2008).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 의식: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3-46.
- 한소영 (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과 상담성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 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9(2), 447-465.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1(2), 439-464.
- 허진자, 고재홍 (2008). 부부의 심리적 욕구차이, 배우자 욕구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 *부부의 심리적 욕구차이, 배우자 욕구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27-41.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미발간 워크숍 교재.
- 황인호 (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4), 271-285.
-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0), 2045-2068.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pp.1-60). Greenwich, CT: JAI Press.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471-476.
- Barrett-Lennard, T. G. (1962). Dimensions of therapist response as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43, 1-13.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rgin, A. E., & Lambert, M. J. (1978). The evaluation of outcomes in psychotherapy. In S. L. Garfield and A. E. Be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n empirical analysis* (2nd ed., pp.139-189). New York: Wiley.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16(3), 252-260.
- Chirkov, V. I.,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2, 618-635.
- Colby, K. M. (1951). *Primer for psychotherapist*. Ronald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ozier, M. (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7-60.
- Fenton, L. R., Cecero, J. J., Nich, C., Frankforter, T. L., & Carroll, K. M. (2001). Perspective is everything: The predictive validity of working

- alliance instruments.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10, 262 - 268.
- Gagne, M., Ryan, R. M., & Bargmann, K.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4), 372-390.
- Goldfried, M. R. & Davila, J. (2005). The role of relationship and technique in therapeutic chang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4), 421-430.
- Horvath, A. O. (2001). The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 365 - 372.
- Horvath, A. O., & Bedi, R. P. (2002). The alliance.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 (pp.37 - 6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2.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Hubble, M. A., Duncan, B. L., Miller, & Wampold, B. E. (2010). Introduction. In B. L. Duncan, S. D. Miller, B. E. Wampold, & M. A. Hubble (Eds).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 Delivering what works in therapy*. (2nd Eds pp.23-4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Ildardi, B. C., Leone, D., Kasser, R., & Ryan, R. M. (1993). Employee and supervisor ratings of motivation: Main effects and discrepanci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a facto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789-1805.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what underlies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 644-661
- Joussemet, M., Koestner, R., Lekes, N., & Landry, R.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to children'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73, 1215-1235.
-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 49, 194-200.
- Kazdin, A. E., & Weisz, J. R. (2003). Introduction: Context and Background of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E. Kazdin & J. R. Weisz (Eds.),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Guilford Press.
- Kernis, M. H., & Goldman, B. M. (2006). A multi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authenticity: Theory and research.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284-357). San Diego: Elsevier Academic Press.
- La Guardia, J. G., & Patrick, H.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s a fundamental theory of close relationships. *Canadian Psychology*, 49, 201-209.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am, C. F., & Gurland, S. T. (2008). Self-determined work motivation predicts job outcomes, but what predicts self-determined work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1109-1115.
- Lambert, M. J., & Ogles, B. M. (2004). The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In M. J. Lambert (Ed.),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th ed., pp.139-193). Wiley.
- Larsen, D. L., Attkinsson, C. C., Hargreaves, W. A., & Nguyen, T. D. (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 197-207.
- Mallinckrodt, B., Gantt, D. L., & Coble, H. M.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07-317.
- Mancini, A. D.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framework for the recovery paradigm.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4, 358-365.
- Marcus, D. K., Kashy, D. A., & Baldwin, S. A. (2009). Studying psychotherapy using the one-with-many design: The therapeutic alliance as an exempla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537-548.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3), 438-450.
- Miller, S. D., Duncan, B. L., & Hubble, M. A. (2005). Outcome informed clinical work. In J. Norcross & M. Goldfrie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nd ed., pp. 84-1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 Ryan, R. M. (2006).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5), 761-775.
- Norcross, J. C. (2002). Empirically supported therapy relationships.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pp.3-16). Oxford university press.
- Orlinsky, D. E., (2006). Comments on the state of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Bulletin*, 41, 37-41.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Patterson, P. G., & Joseph, S. (2007). Person-centered personality theory: Support from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positive psycholog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7, 117-139.
- Pelletier, L. G. & Sharp, E. (2008). Persuasive

- communication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s: How message tailoring and message framing can improve the integration of behaviors through self-determined motivation. *Canadian Psychology*, 49, 210-217.
- Pelletier, L. G., Tuson, K. M., & Haddad, N. K. (1997). Client motivation for therapy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for 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414-435.
- Pink, D. H. (2009). *Drive: The Surprising Truth About What Motivates Us*. Riverhead.
-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2000). Toward a Dialectical Analysis of Growth and Defensive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11(4), 301.
- Reeve, J., & Robinson, D. T. (1987).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Correlates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ctivity-feeling scal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23-36.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In S. Fiske (Ed.),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8).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psychotherapy: The motivational basis for effective change. *Canadian Psychology*, 49, 186-193.
- Ryan, R. M., & Lynch, J.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3), 340-356,
- Ryan, R. M., Deci, E. L., & Grolnick, W. S. (1995). Autonomy, relatedness, and the self: Their relation to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s* (pp. 618-655). New York: Wiley.
- Ryan, R. M., Deci, E. L., Grolnick, W. S., & La Guardia, J. G. (2006). The significance of autonomy and autonomy support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 (2nd ed., pp.795-849).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Ryan, R. M., Lynch, M. F., Vansteenkiste, M., & Deci, E. L. (2010). Motivation and autonomy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 look at theory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Online First*, 1-68.
- Sheldon, K. M., & Krieger, L. S. (2007). Understanding the negative effects of legal education on law students: A longitudinal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6), 883-897.
- Sheldon, K. M., & Niemiec, C.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2), 331-

- 341.
- Sheldon, K. M., Joiner, T. E., Pettit, J. W., & Williams, G. C. (2003). Reconciling humanistic ideals and scientific clinical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 302-315.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ing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ng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44-646.
- Stiles, W. B. (1989). *Use of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Manuscript, Miami University.
- Tracey, T. J., & Kokotovic, A. M. (1989). Factor structure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3), 207-210.
- Vansteenkiste, M., & Sheldon, K. M., (2006). There's nothing more practical than a good theory: Integrating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63-82.
- Vansteenkiste, M., Neyrinck, B., Niemiec, C. P., Soenens, B., De Witte, H., & Van den Broeck, A. (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2), 251-277.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logical Debate: Models, Methods, and Finding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ampold, B. E. (2007). The Psychotherapy: The humanistic (and effective) treatment. *American Psychologist*, 62, 857-873.
- Wampold, B. E. (2010). The research evidence for the common factors models: A historically situated perspective. In B. L. Duncan, S. D. Miller, B. E. Wampold, & M. A. Hubble (Eds).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 Delivering what works in therapy* (2nd eds pp.49-8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ilson, P. M., Mack, D. E., & Grattan, K. P. (2008). Understanding motivation for exercis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Canadian Psychology*, 49, 250-256.
- Zeldman, A., Ryan, R. M., & Fiscella, K. (2004). Client motivation, autonomy support and entity beliefs: Their role i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75-696.
- Zuroff, D. C., Koestner, R., Moskowitz, D. S., McBride, C., Bagby, M., & Marshall, M. (2007). Autonomous motivation for therapy: A new non-specific predictor of outcome in brief treatments of depression. *Psychotherapy Research*, 17, 137-148. <http://www.psych.rochester.edu/SDT/questionnaires.php>

원 고 접 수 일 : 2010. 9. 6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8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Soyoung Han

Yonsei University

Heecheon Shin

Ajou Univerisity

This study aimed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BPNS-TR)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Item pool was develop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clients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literature. Responses to the scale were fitted to a 3-factor structure. The scale and the three subscales (i.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ithin the scale also showed reliability and validity at an acceptable level.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the three subscales significantly predicted counseling outcomes (i.e., clients satisfaction and session evaluation). However, the both autonomy and relatedn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occupied-merger attachment, which might imply measurement confounding in autonomy and relatedness satisfaction of client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and direction for further research is discussed.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theory(SD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counseling outcome